

# 민족사에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고려의 건국

고려는 10세기초에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재건하고 국토통일을 지향하는 겨레의 열망을 반영하여 세워졌다.

901년 왕으로 된 궁예가 나라이름을 《후고구려》(후에 마진, 태봉국이라고 함)라고 한 것은 당시 인민들속에서 고구려와 같은 강대한 나라를 세우려는 지향이 강렬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시기 통일에 대한 열망도 매우 높았다. 이미 통일에 대한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고구려는 삼국통일을 거의 완성단계에 올려세웠으며 그 열기는 고려시기에 더욱 고조되었다. 태봉국말년에 궁예의 반대파들이 왕권을 앞으로 국토를 통일할 인물이라고 암시하는 《도합설》 등을 널리 퍼뜨린 사실은 그 일단을 보여준다. 태봉국안에서 궁예의 폭정

은 극도에 달하였다. 궁예의 강권과 친형, 권모술수 그리고 고고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과 학살은 인민들의 분노와 반항심을 분출시켰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배층에까지 퍼져갔다.

이러한 사회력사적배경속에서 918년 왕건은 측근자들과 함께 정변을 일으켰다. 왕건은 여러 장수들과 함께 왕궁으로 쳐들어갔는데 수도와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왕건이 앞으로 국토를 통일할 인물이라고 암시하는 《도합설》 등을 널리 퍼뜨린 사실은 그 일단을 보여준다. 태봉국안에서 궁예의 폭정

우리를 계승한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로 출현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고조선의 계승국으로서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천년강국으로 자랑높았던 나라였다. 고구려는 민족의 지향인 삼국통일을 다그쳐 5세기말~6세기초에 방대한 영토를 차지함으로써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높였다.

고구려이후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는 말해로 이어졌으며 그 정통성은 10세기초에 세워진 고려에 의해 확고히 계승되게 되었다.

왕건이 고구려의 옛 남부지방에서 고구려유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나라를 세우며 국호도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고려라고 한 것은 그 계승국으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는 것은 고려정권 사회와 외래침략군의 우두머리와 의 담판내용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때 사회는 고려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며 나라이름을 고려라고 한 것은 그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적들의 부당한 요구를 일축해버렸다.

이것은 당시 고려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것을 떳떳한 자랑으로 여기고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고려의 계승국인 고려의 건국으로 우리 민족 국가의 정통성은 고조선—고구려—말해—고려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고려의 건국으로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형성과 민족의 통일적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고려는 고구려의 통일정책을 계승하여 국토통일을 일관성있게 밀고나갔다.

이것은 고려가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고구려의 지향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는 것을 확증하여 준다.

고려는 고구려의 통일지향을 이어받았을뿐 아니라 국토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포섭정책으로 주변의 봉건세력들을 복속시키고 서경(평양)을 중심기지로 꾸려 북방진출을 다그쳐

나갔다. 그리고 926년 발해가 멸망하자 동족의 나라인 고려로 찾아오는 수많은 유민들을 적극 받아들였다.

한편 고려는 후기신라를 포섭하고 후백제를 군사적으로 제압하였으며 마침내 936년 국토통일을 이루하였다.

고려에 의한 국토통일로 민족의 통일적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고려에 의한 국토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단합된 힘과 지혜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경제와 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고려의 국력과 발전된 문화가 펼쳐졌으며 우리 나라는 《코레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고려에서는 《고려자기》, 《고려비단》, 《고려력》 등으로 불리우는 천하의 명물들이 생산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출판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이처럼 고려의 건국으로 하여 민족사에 첫 통일국가를 출현시킨 사변이 기록되게 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우리 겨레는 자기의 존엄과 슬기를 더욱 높이 떨치며 자랑스러운 발전의 년대기를 수놓을 수 있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건국 1100년이 되는 해이다.

# 호평이 자자한 《봄향기》 화장품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되는 《봄향기》 화장품은 개성고려인살을 주성분으로 하고 묘향산과 랑림산맥에서 자라는 희귀한 천연기능성약재들이 들어있는 다기능성영양화장품이다.

《약초의 왕》으로 불리우는 개성고려인살에는 칼리움과 나트륨, 칼슘을 비롯한 무기물과 비타민 B군 특히 B1, B2와 함께 아미노산, 글루타민산 등이 풍부히 들어있다.

《봄향기》 화장품에는 인체에 이상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의 특성에 맞게 인체에 필요한 영양성분들과 천연활성물질들이 들어있어 피부를 윤기나게 하고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며 미백효과가 크다.

또한 중금속이온이 없고 표준미량원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리상적인 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의 세포재생과 단백질합성을 촉진하고 항방사능작용, 항암치료 등 건강과 피부노화방지에 좋다.

《봄향기》 물크림과 보습성살결물만 보아도 강한 보습작용으로 피부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잔주름을 없애며 습진 등 각종 피부병에 방치료에 특효

가 있다.

《봄향기》 미백영양물도 피부에서 멜라닌색소를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증가시켜 주름살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 밤크림역시 강한 영양제 침투로 피부의 피호름량과 단백질을 증가시키고 살갗병을 예방하는데 좋다.

피부색을 연하게 하고 검버섯과 주근깨를 없애며 밝고 투명한 피부로 갱신해줌으로써 미백의 본질적요구를 만족시켜주는 미백화장품세트는 여성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에기용화장품세트도 에기들의 연한 피부에 전혀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피부를 맑고 생기있게

해준다.

《봄향기》 화장품들은 그 영양가와 기능성이 대단히 높아 이미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들에서 최우수제품으로 인정받았으며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등 국제상품전시회들에서 상장을 수여받았다.

피부천연보습제인 고분자, 저분자히알루론산생상방법, 미백제원인인 누룩산제조방법, 자외선방지기능을 가진 원료제조방법 등 국내원료에 의거한 우리 식의 생산방법으로 만든 《봄향기》 화장품은 국내외의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이 대단하다.



고려성군관

개성시가 력사문화도시답게 더욱 번드러지고있다.

개성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최근년간 100여개 대상의 력사유적들과 고려성군관, 자남산유원지를 비롯한 교육 및 문화봉사시설들을 훌륭히 개건확장하였다.

한편 민족유산보호관리부문 근로자들은 왕건왕릉, 만월대, 관음사, 령동사를 비롯

한 수습개 대상의 력사유적보수작업을 짧은 기간에 진행하여 옛 모습을 살려놓았다.

고려박물관에서는 참관자들이 민족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인식하는데 편리하게 진렬전시물과 학생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보장하면서 박물관의 특성이 잘 살아나게 전시내용을 폭넓게 하였다.

적들에 대한 단청작업을 고전미가 나게 질적으로 해놓았다.

고려박물관에서는 참관자들이 민족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인식하는데 편리하게 진렬전시물과 학생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보장하면서 박물관의 특성이 잘 살아나게 전시내용을 폭넓게 하였다.

어느 한 나라 학자들이 국내에서 사망한 35살이상의 어린 2만 4 079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망하기 전 10년동안의 생활방식을 조사한 결과 6 400명이상이 운동부족으로, 약 5 700명이 흡연으로 사망했을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육체운동을 적게 하였을 때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남자에게는 45%, 여자에게는 28%,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은

각각 92%와 75%,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은 각각 52%와 98% 더 높아진다고 한다.

때문에 학자들은 담배를 피우는것이 나쁜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것은 더 나쁘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학자들이 권고하고있는 적당한 운동의 시간량은 한주일에 30분씩 3~4번 혹은 매일 30~60분씩 운동을 진행하는것이라고 한다.

## 흡연보다 더 나쁜 운동부족

## 《단백초》를 식생활에 리용

공화국에서 식생활에 《단백초》를 리용하는 단위와 가정들이 늘어나고있다.

심야산이 들어있어 약간의 신맛을 가지고있는 《단백초》를 끓는 물에 데쳐 씻은 후 음식감으로 리용하면 잡맛이 없어지고 구수한 맛이 난다.

《단백초》는 만두나 빵의 소감으로, 고기류와 섞어 볶음에 많이 리용되며 토장국을 끓일 때에 리용하면 독특한 맛을 나타낸다.

있을 그대로 갈아 즙을 만들어 주스제로나 지질감 등에 섞으면 음식의 질이 보다 높아진다.

《단백초》로 만든 김치도 맛과 빛깔이 좋은 특색있는 식품으로 되고있다.

생물학적특성이 우수하고 경제적가치는 물론 이롭고 대로 단백질함량이 높은 이 낫새작물은 지난해에 육종되어 공화국 각지에 퍼지고 있다.

라고도 불렀으며 《추천》이라고도 하였다.

그네뛰기에는 한사람이 뛰는 형식(외그네)과 두사람이 한 그네에서 마주 향해 함께 뛰는 형식(쌍그네 또는 맞그네)이 있었다.

보통 승부를 가를 때에는 외그네뛰기를 많이 하였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명절날, 휴식일은 물론 평시에도 녀성들 누구나 다 그네뛰기를 즐기고 있다.

그네뛰기는 또한 국제무대에서 절찬을 받는 교예종목으로 발전하였다.

몽테카를로국제교예축전과 중국의 무한국제교예축전에서 교예 《쌍그네뛰기》를 수여받은 사실은 그리, 《굴기》, 《홀 단적인 실례이다.

조선녀성들이 오랜 옛날 부터 즐기는 민족놀이들이운데는 봄과 가을에 널리 진행해온 그네뛰기도 있다.

그네뛰기는 그네대 혹은 굵은 나무가지에 두가닥으로 늘어낸 바줄(그네줄)끝에 디더기를 얹고 그우에 올라 앞뒤로 구르면서 높이 날아오르기를 겨루는 운동놀이이다.

그네뛰기는 공간에서 자기의 몸을 가늘게 줄이는 기능과 대담성, 용감성을 키워주며 사람들의 생활을 정서적으로, 명랑하게 하여준다.

력사기록에는 세나라 시기에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그네뛰기가 널리 진행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평양의 그네놀이가 특별히 유명한것으로 씌여있다.

지방에 따라 《굴기》, 《홀 단적인 실례이다.



## 단편소설 신지글자 (2)

그는 뒤따르는 군사들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사슴을 놓쳤다.》

그러자 군사들이 두 팔안에 나누어 내리며 《후—어!》 후리소리를 쳤다. 산이 가파로와 물이군사들의 걸음을 재촉시키고 또 사냥의 흥을 돋우려고 소리쳤다. 《사슴을 먼저 찾는자에게 상을 줄레다.》

이 말이 팔안에 찌렁찌렁 메아리치자 뒤이어 군사들의 후리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군사들은 저마다 먼저 사슴을 발견하고 상을 받자는 심산에서 더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오래도록 사슴을 땡겨내지 못했다. 이렇게 한동안 지났을 때였다.

《여기 있소이다.》

한 팔짜기에서 군사의 웨침소리가 들렸다. 신지는 곧 말을 몰아 그 팔짜기로 내려갔다.

《어데 있느냐?》

신지는 소리친 군사에게 다우쳐 물었다.

《아직은 보이지 않으나 여기에 발자국이...》

《발자국?》

신지는 소리친 군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팔안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밀려서 쌓인 넓은 모래밭위에 두마리의 사슴이 달려간 발자국이 력력하였다.

《발자국을 보고 있다고 소리쳤나?》

《그러기 말일세.》

《그러면 상은 발자국에게 주어야겠구만...》

뒤따라 모여온 군사들이

글 김정설, 그림 리성일

비웃으며 떠들었다. 소리쳤던 군사는 얼굴이 벌개서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사슴발자국을 보는 신지에게는 사슴을 놓쳐버린 아쉬움이 사라졌다. 사슴이 간곳을 말해주는 발자국이 고맙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사슴의 발자국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있을 때였다.

《있소이다. 있소이다. 사슴이 저기 있소이다.》

사슴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소리쳤던 그 군사였다. 신지는 머리를 들어 군사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부성하게 우거진 덩굴속에 누런 사슴의 몸통이가 약간 보이였다. 참으로 발자국이 없었더라면 사슴을 찾아내지 못하였을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덩굴속에서 몸을 빼여 달아나려고 허우적거리는 사슴과 발 앞에 놓여있는 사슴발자국을 번갈아보던 신지는 움직임 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다.

이러는 사이에 한마리 사슴이 간신히 덩굴속에서 몸을 빼여 달아나고 뒤이어 다른 한놈도 몸을 빼고있었다. 이를 보는 군사들이 안타까이 소리쳤다.

《사슴이 도망친다.》

그때도 신지가 멍하니 서서 보지만 하니 군사들은 하수 없이 창을 들고 사슴한테로 달려갔다.

《가만, 잡지 말어라.》

《그러면 상은 발자국에게 주어야겠구만...》

뒤따라 모여온 군사들이

놓아주고 궁궐에 돌아와서는 다시 사냥하러 나가지 않았다는 괴이한 이야기가 궁궐의 관리들속에서 돌면서 별의별 뒤소리들이 나돌았다. 이러한 소문과 뒤소리가 드디어 단군의 귀에까지 전하여졌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된 단군은 어느날 신지가 일하는 방으로 조용히 찾아갔다.

《그대는 어이하여 사냥하러다가 돌아왔느냐? 그동안 일에서 치우게다니 사냥맛도 잃어버린게 아니냐?》

《아니오이다.》

《그럼 어째서 다 돌아놓은 사슴도 잡지 않고 놓아주

놓아주고 궁궐에 돌아와서는 다시 사냥하러 나가지 않았다는 괴이한 이야기가 궁궐의 관리들속에서 돌면서 별의별 뒤소리들이 나돌았다. 이러한 소문과 뒤소리가 드디어 단군의 귀에까지 전하여졌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된 단군은 어느날 신지가 일하는 방으로 조용히 찾아갔다.

《그대는 어이하여 사냥하러다가 돌아왔느냐? 그동안 일에서 치우게다니 사냥맛도 잃어버린게 아니냐?》

《아니오이다.》

《그럼 어째서 다 돌아놓은 사슴도 잡지 않고 놓아주

견한 기쁨은 컸으나 다음 순간 차마 사슴을 쫓아주지 않았다.

《어째서?》

《오늘에 와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죄송스러우나 소인은 지난해 사냥에서 사슴을 따라다 놓쳐버렸을 때처럼 전하께서 내린 지시 가운데 오래된것들은 잘 기억이 되지 않아 다시 물으려 오는 사람한테 대주지 못하오니 한두번이 아니였나이다. 사슴은 흔적을 남기어 놓쳐버린 사슴을 다시 찾게 하였었으나 소인은 한번 잃어버린 지시를 다시 되살려낼 재간이 없음을 사슴보다 못하다는 부끄럼이 들었나이다.》

《사슴보다 못하다...》

《그렇소이다. 이때 소인은 물론 지난해 소인이 한 일을 사슴처럼 뒤날에 다시 되살려내게 하는 흔적을 만들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여 사냥을 거두고 즉시 돌아왔나이다.》

《그래 그 흔적을 남기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낸다는 것인가?》

그러자 신지는 방 한구석에 쌓아놓았던 대쪽무지에서 몇개 쥐여다 단군에게 보였었다. 그 대쪽에는 서로 다른 모양의 선과 점들이 그려져 있었다.

《소인이 그날부터 밤마다 생각해본것이나이다.》

《여기에 그은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말에 각기 뜻과 소리가 다르듯이 이 선과 점들이 말과 뜻을 대신하게 하면 어떤 말이든지 대쪽에 옮겨놓을수 있고 그후 아무때이건 이 대쪽을 보면 그 어느때 말이라도 다시 알아볼수 있게 될것이나이다.》

《그것 참 신중한 생각이로다.》

《그러면 임금이 내린 어지나 아래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이런데 옮겨주면 우리 하는 일이 한결 쉬워질뿐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을 먼 후대에게도 오래도록 전할수 있을것 하나이다.》

《그렇다...》

단군은 신지의 방 한구석에 가득 쌓여있는 대쪽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리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다가 크나큰 기쁨과 감동이 어린 기색으로 신지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었다.

《참말로 좋은 생각을 하였다. 사냥을 하면서 사슴의 발자국 보아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한것은 오직 나라 위한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오는 그대뿐이로다. 어서 빨리 그 방법을 만들어내거라.》

《알겠소이다.》

이날부터 신지는 단군의 깊은 관심속에 말과 뜻을 대쪽에 옮겨놓을 방법을 탐구하는데 온갖 지혜와 열정을 바치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글자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 글자를 신지가 만들어 내었다 하여 후세에 신지글자라고도 하고 사슴의 발자국을 보고 드디어 글자를 만들기 시작하였다고 하여 사슴글자 즉 《목자》 글자라고도 불려나오다 한다.

고조선의 옛무덤에서 발굴되는 질그릇들에 새겨져 있는 신지글자들과 《녕변지》에 실려있는 16자의 신지글자는 그 당시 신지가 만들어낸 글자의 모양을 오늘날에도 력력히 볼수 있게 하고있다.

유모아

《무엇이 서러워 울겠소이까》

피들이네 종자됨을 빗값으로 빼앗아간 지주가 다음날 아침에 나타나 피들이아버지를 욕질했다.

《내 빗값으로 가져간 네놈의 수탉이 크고 멋지긴 해도 울지 않으니 언제 제구실하겠느냐?》

《있다뿐이겠느냐. 아주 멋진것이 있지.》

《주사님, 그러니 닭이 무엇이 서러워 울겠소이까. 먹울것도 있는데다가 암탉까지 있는데...》

《어데 있느냐?》

신지는 소리친 군사에게 다우쳐 물었다.

《아직은 보이지 않으나 여기에 발자국이...》

《발자국?》

신지는 소리친 군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팔안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밀려서 쌓인 넓은 모래밭위에 두마리의 사슴이 달려간 발자국이 력력하였다.

《발자국을 보고 있다고 소리쳤나?》

《그러기 말일세.》

《그러면 상은 발자국에게 주어야겠구만...》

뒤따라 모여온 군사들이

